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6:41~59

【인도자를 위한 예화】

심한 갈증으로 허덕일 때 우리는 청량음료나 이온음료보다 물을 찾게 됩니다. 인공적인 음료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물맛을 따라갈 수 없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 갈증을 해소하는 데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인공 제품 역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지닌 과일의 달콤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게다가 인공 제품은 건강에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만물이 가장 맛있고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푸르른 산을 많이 보는 방법도 치유법 중 하나입니다.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가면 바로 치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이나 제품도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으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가 주는 놀라운 회복력과 생명력을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자연 자체를 섬기면 우상이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이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신비로운 회복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배경 이해하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일곱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를 헬라어로 evgw, eivmi,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나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요 6:35, 48),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 8:12; 9:5). "나는 (양의) 문이다"(요 10:7, 9). "나는 선한 목자다"(요 10:1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 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 "나는 참포도나무다"(요 15:1). 그중 '생명의 떡'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떡'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출 16장; 민 11장)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먹이시는 예수님(6:1~15)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신적 권능의 예수님(6:16~21)에 관한 기사를 앞에 배치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6:22~59)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로 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시고(요 13:26),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셔서 떡을 먹이시면서(요 21장) '생명의 떡'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십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41~42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수군거립니다. 다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44절). 만일 구약 선지자들의 글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사 54:13), 예수님께서도 나아올 수밖에 없습니다(45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

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46절).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49~51절). 다만, 만남은 일시적이며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며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뒤에 나온 말씀을 보면, 따르던 여러 제자조차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60~61절).

적용과 나눔 I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편견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내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 “육신의 부모를 뵈히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42절)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신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자기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52절)라고 하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과 문자주의적인 해석으로 가득하다면 영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관찰과 묵상 II

예수님은 그분의 살과 피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요?(55~56절)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함께한 만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닫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바라시며 모든 사람을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공급해 주셔야만 주님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원리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초대하시는 식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과 나눔 II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함을 내 삶과 공동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주제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4:24)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쏟으신 피와 육신의 죽음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됩니다.